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AMERICAS

미주 권역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8/10~08/16

1. 미국 해상·트럭 운임 급등과 운송 시장 회복
2. 물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철도 시설 인수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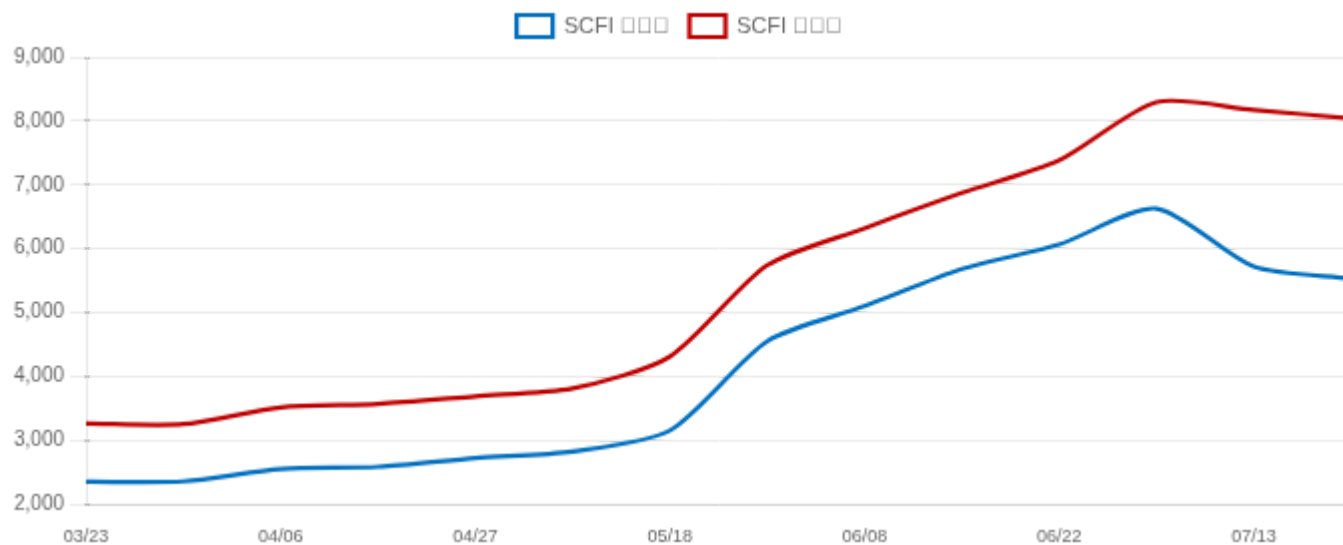
종합

미국 운송 시장이 해상·트럭 운임의 동반 급등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함. 성수기 연장과 운송 공급 축소가 수요 감소를 압도한 결과로, 물동량 감소 우려를 불식시키는 흐름임.

이러한 시장 회복은 물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사모펀드 스톤피크가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철도 연계 화물 시설을 인수하며 항만과 내륙 철도를 잇는 복합운송 네트워크 구축에 나섬. 이는 운송 수익성 개선과 공급망 효율화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향후 철도 시설 인수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미서안	5,535 \$/FEU	07/20	-3.3%	-8.8%
SCFI 미동안	8,040 \$/FEU	07/20	-1.6%	+8.9%
KCCI 미서안	6,733	08/10	+9.1%	0.0%
KCCI 미동안	9,696	08/10	+7.9%	+13.8%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KCCI) · 기준 07/20

미국 해상·트럭 운임 급등과 운송 시장 회복

미국발 해상·트럭 운임이 동시에 급등하며 운송 시장이 회복 국면에 진입함. 이는 성수기 연장과 운송 공급 축소가 수요 감소를 압도한 결과임.

아시아발 미국 동부행 해상 현물운임이 40피트 컨테이너(FEU)당 914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서안행도 전주 대비 11% 오른 6826달러를 나타내며 태평양 노선 운임 강세가 지속됨. 조기 성수기 시작 이후 아시아~유럽 운임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수 주간 독자적인 상승세를 보임.

트럭운송 부문에서는 계약 운임이 7월 사상 최대 폭으로 반등함. 드라이벤 계약 운임은 마일당 3.01달러로 12센트 상승했고, 냉동은 3.29달러, 플랫폼은 3.83달러를 기록함. 물동량은 모든 장비 유형에서 감소했음에도 운임이 오른 것은 운송 공급 축소가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됨.

해상 운임 급등의 원인은 미국 소비 수요와 재고 확충 수요, 그리고 관세 부과를 앞둔 조기 선적이 맞물리며 성수기가 연장된 데 있음. 항만 수입 물동량은 7월 221만TEU, 8월 222만TEU로 예상되며 올해 최고치인 5월 224만TEU에 근접함. 트럭 시장은 운송사업자 감소로 인한 공급 축소가 수요 감소를 압도함.

이러한 운임 급등은 화주에게는 운송비 부담 증가로, 운송사에게는 수익성 회복 기회로 작용함. 해상 운임 강세는 성수기 종료 후에도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럭 운임은 공급 주도형 시장이 지속되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

- 아시아~미 동부 운임 9144달러/FEU, 서안 6826달러/FEU로 사상 최고치
- 7월 트럭 드라이벤 계약 운임 마일당 3.01달러로 전월 대비 12센트 상승
- 트럭 물동량 냉동 부문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에도 운임 상승
- 미국 항만 7월 수입 물동량 221만TEU, 8월 222만TEU로 성수기 연장

전망

미국 소비 수요와 재고 확충이 지속되며 해상 운임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트럭 시장은 공급 축소가 단기 운임 흐름을 좌우하며, 수요 회복 여부에 따라 추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음.

시사점

화주 — 해상·트럭 운임 동반 상승으로 운송비 예산 재조정이 필요하며, 성수기 연장에 대비한 선복 확보가 중요함.

포워더 — 태평양 노선 운임 변동성 확대로 리스크 관리와 스팟·계약 운임 전략의 유연한 조정이 요구됨.

항만·선사 — 성수기 연장에 따른 물동량 유지로 수익성 개선 기회가 있으나, 혼잡 관리와 공급 능력 확대가 필요함.

물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철도 시설 인수

사모펀드 스톤피크가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철도 연계 화물시설을 인수하며 항만 터미널과 내륙 철도 거점을 아우르는 복합운송 네트워크 확보에 나선다. 이는 글로벌 물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철도 시설 인수 경쟁 심화를 반영한다.

스톤피크는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86만100평방피트 규모의 철도 연계 화물시설을 인수함. 해당 자산은 2개 1등급 철도 노선과 BNSF 얼라이언스 복합운송 터미널, 포트워스 얼라이언스 화물공항에 인접하며 I-35 나프타 고속도로 접근성도 확보함. 이로써 스톤피크는 최근 1년간 댈러스-포트워스, 휴스턴, 잭슨빌, 시카고 일대에서 총 770만평방피트의 운송 인프라 연계 물류 자산을 매입함.

이번 인수는 스톤피크가 이달 초 CMA CGM 그룹과 24억달러 규모 합작법인을 설립해 미국·브라질·스페인·대만·베트남 등 9개 컨테이너 터미널 현대화에 나선 직후 이루어짐. 해상 터미널 투자에 이어 내륙 철도 화물 거점까지 확보하는 것은 항만-내륙 연결성을 강화하여 복합운송 네트워크 지분을 늘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됨. 또한 스톤피크는 2023년 캐나다 해상 운송 업체 로지스텍을 12억달러에 인수하는 등 공급망 전 구간에 걸쳐 자산을 축적해옴.

이러한 사모펀드의 물류 인프라 투자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운송 수요 증가에 대응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항만 터미널과 내륙 철도 야드를 함께 묶는 전략은 화물의 원활한 환적과 내륙 분산을 가능하게 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이는 해운·철도·도로를 연계한 복합운송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함.

업계에서는 사모펀드가 항만 터미널과 내륙 철도 야드를 결합하여 복합운송 네트워크 지분을 확대하는 전략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물류 인프라 자산 가격 상승과 함께 물류 기업 간 경쟁 심화가 예상됨.

- 스톤피크, 텍사스 포트워스에 86만100평방피트 규모 철도 연계 화물시설 인수
- 인수 자산은 BNSF 얼라이언스 복합운송 터미널 및 포트워스 얼라이언스 화물공항에 인접
- 최근 1년간 댈러스-포트워스, 휴스턴, 잭슨빌, 시카고 일대에서 총 770만평방피트 물류 자산 매입
- 이달 초 CMA CGM과 24억달러 규모 합작법인 설립, 9개 컨테이너 터미널 현대화 추진
- 2023년 캐나다 해상 운송업체 로지스텍을 12억달러에 인수

전망

사모펀드의 물류 인프라 투자는 당분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항만 터미널과 내륙 철도 시설을 결합한 복합운송 네트워크 구축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물류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물류 서비스의 통합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시사점

화주 — 복합운송 네트워크 확대로 항만-내륙 간 운송 옵션이 다양해지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으나, 인프라 소유 집중에 따른 운임 변동성에 주목해야 함.

포워드 — 사모펀드가 소유한 물류 자산 활용 시 운송 경로 유연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자산 보유 경쟁사와의 협상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항만·선사 — 터미널 현대화 투자와 내륙 거점 연계를 통해 화물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사모펀드와의 합작 구조에서 운영 자율성 확보가 관건임.

